

2017 가을호
www.jungtoh.org



수행과 돌봄이 하나된 —————
정토마을 행복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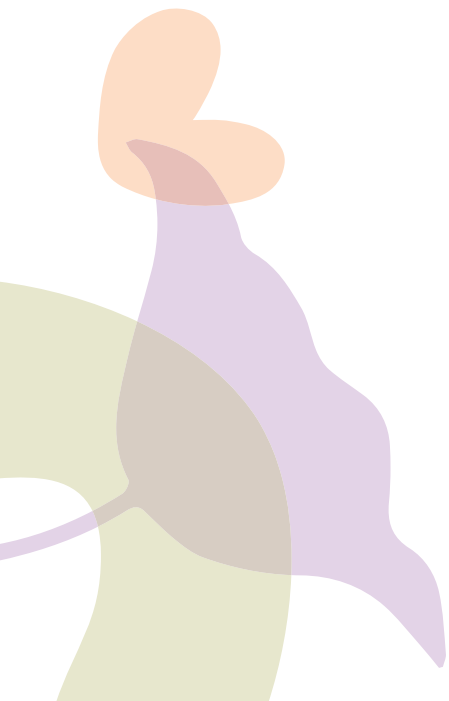
발행처_ (재)정토사관재회 발행일_ 2017년 10월 23일 발행 편집인_ 능행 등록_ 울산바01004 (2008.4.11)
 편집위원_ 장광대 김현아 최진현 사진_ 편집부 정토마을(울산)_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052-255-8588) 정토마을(청주)_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초정로 856-19 (043-298-2258)
 마하보디교육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052-255-8521) 제작_ (재)정토사관재회
 비매품 본 인쇄물은 석보체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2017 가을호 (통권 113호)

목 차

01	여는 글	04
02	명상카툰	07
03	병원 둘러보기	08
04	힐링푸드	10
05	교육원 후기	12
06	공덕의 향	17
07	정토발원문	18
08	청주 정토마을 소식	19
09	법화경강설	20
10	후원 및 자원봉사	25
11	환자 가족 이야기	27
12	삶과 함께하는 정토의 세계	31
13	숨	34
14	후원명단 및 감사의 글	36
15	재단 소식	39
16	모연문	44



秋 가을의 찬가



설 새 없이 땅을 달구어대던 팔월은
그 열기가 무색하게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삼층 다락방 창가에 늘 있어 주던 푸른 숲
그 숲 꼭대기에 가을이 찾아들었습니다.

숲을 물들이며 앞산에서 내려오는 나무들 사이로
풀벌레들이 가을을 노래합니다.

신불산 아래 소박한 시골마을은 모든 것이 셋노랑게 물들어가며
깊어가는 가을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가을이 익어 눈꽃을 피우고, 눈꽃은 봄꽃을 피우는 자연의 위대함을
깊어가는 가을이 노래합니다.

정토마을 후원가족이신 당신과 나의 삶이
후회하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떠나온 시간들은 뒤돌아봐야 소용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또는 삶을 살아내면서도
지나고 흘러버린 시간에 대하여 이토록 되새김질을 해야 하는지……
깊어가는 가을 그날그날 많이 행복해 하시고 추억도 많이 만들어 보시는 시간 되신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름인가 했더니 벌써 가을이 깊어가는군요.
 시간이 무척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후원자님이 기쁜 마음으로 지원해주신
 인도 보드가야 의료봉사를 떠날 준비에 많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하여 당신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당신의 기도와 깊은 관심이 많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곳 정토마을 자재병원엔 여전히 많은 봉사자들을 초대하고 있으며,
 마하보디 교육원은 10월 중순에 실시되는
 “죽어감·죽음”에 대한 승려들을 위한 교육 준비와
 2018년 1월 7일부터 시작되는 “생사의 장” 교육생 초대에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토마을은 매년 실시되는 법화경 장좌기도를 접수 받고 있으며
 2018년 양력 2월 10일부터 입재하여 3월 2일 정월 대보름에 회향하는
 여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정토마을 법인 052-255-8588로 연락하여 안내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상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손잡아 함께 가주시는 후원자인 당신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대께서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삶을 살아내시든,
 부디 건강 잘 돌보시고 항상 안녕하시며 가족 모두 두루 평안하시기를 말입니다.
 늘 붓다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정토마을 자재병원 트랙에서 능행 합장



능행스님과 SNS 친구해요!



정토마을에 계신 능행스님을
 후원자님의 집에서 SNS로 만나볼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능행스님과 소통도 하고,
 능행스님의 좋은 글귀도 매일 받아보실 수 있는 SNS 친구맺기!
 오늘부터 같이 해 보실래요?



● 능행스님과 SNS 친구하는 방법 ●	 카카오톡 - 친구 목록 - 친구 검색 - '정토마을 능행스님' 입력&검색 - 플러스친구 추가	 인스타그램 - 화면 하단 검색 - '능행스님' 입력&검색 - 팔로잉
	 카카오톡 - 화면 상단 검색 - '능행스님' 입력&검색 - 친구 추가	 다음 카페 검색 '정토마을' - 가입



밝음을 밝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고
슬픔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추한 것도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
긍정적인 에너지, 웃음입니다.

심연 용정운 | 불교일러스트레이터, 카툰니스트

2012년 불교언론문화특별상 수상
'일상에서의 작은 깨달음'으로 2011년 올해의 불서 우수상 수상
회향 : www.zentoon.com / 이미지보리 : www.imagebori.com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Healing is Loving
사랑이 곧 치유입니다.

현대 의학으로 더 이상 치료될 수 없는 환자들에게 따스한 빛이 되어 주고
생명존중, 영적 치유에 가치를 두어 붓다의 무한한 자비를 바탕으로 한
조건 없는 나눔!

항상 실천하는 불교요양병원, 불교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완치가 어려운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입니다. 남은 여생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 정서, 사회, 영적인 돌봄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별 후 가족이 갖는 고통과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인 돌봄 (holistic care)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오해

- 완화의료기관은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다?
 - ➔ 무의미한 치료보다 적극적인 돌봄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환자와 가족의 정서적, 사회적, 영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 완화의료기관은 환자를 포기하는 곳이다?
 - ➔ 통증 등의 적극적 신체 증상치료와 심리적, 사회적 지지를 포함 임종 돌봄, 사별가족 돌봄을 제공합니다.
- 완화의료기관은 비싸다?
 - ➔ 일반병원과 같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암환자는 중증질환으로 본인부담 5%가 적용됩니다. (단, 비급여항목은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토마을 자재영양병원 호스피스병동의 특별함

- 특별한 선물
 - ➔ 입원에서부터 다양한 측면의 영적 고통에 대하여 호스피스팀이 영적 돌봄에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영남 알프스의 바람과 동반하는 맑은 산소 그리고 푸른 숲, 따뜻한 정, 심장과 심장으로 전해지는 따스함, 그리고 정토마을은 당신으로 하여금 어둠에서 희망의 빛을 보게 합니다.
- 특별한 임종의식
 - ➔ 티벳 사자의 서와 명상염불로 죽음의 여정 중에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돕습니다.
 - ➔ 몸과 의식의 분리를 돕습니다. (8시간 이상)
 - ➔ 임종복과 딱돌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적 고통과 영적 고통, 그리고 임종 중의 좋지 못한 압력에서 안전하도록 보호해 줍니다. 불교인의 죽음일 경우에는 죽음을 맞이한 분을 위하여 49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 정토마을 승가스님들께서 장례 및 장례 이후의 여정에 대하여 상담을 제공합니다.
 - ➔ 보호자와 환자의 심적 고통에 대한 상담은 간호사실에 의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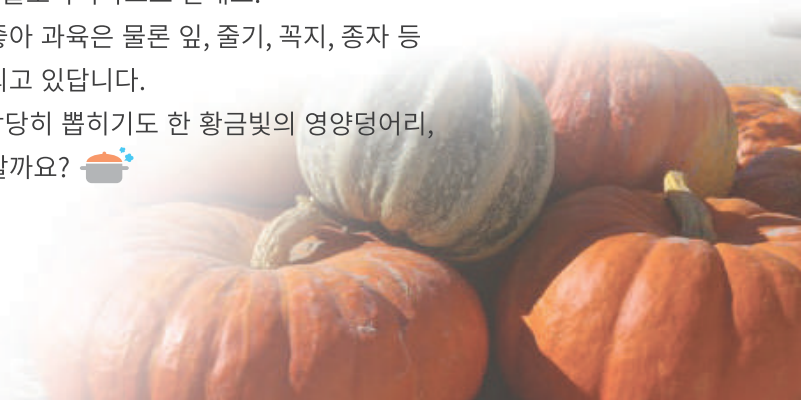
못 생겨도 괜찮아! 늙은 호박

|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영양실장 정길영

“ 세상사를 말할 때는 / 겉만 보고 말하지 마라
홀로 꽃 피우고 맏힌 / 호박덩이일지라도
단 한 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았다
숨 턱턱 막힌 삼복더위와 / 처서 넘은 입동까지도
지칠 줄 몰랐을 저 불같은 성정 ”

- 박철영 시 '늙은 호박' 중에서

위 시에서도 보듯이 늙은 호박은 숙성된 기간만큼 성숙하고 더 많은 영양소와 효능을 가집니다. 보통 호박꽃이 수정되어 떨어진 후 10일 이내의 열매를 애호박이라 하고, 60일 이후가 된 황금색 호박을 흔히 늙은 호박이라 부르지요. 대개 늙은 호박이라 칭하지만 원래 이름은 청둥호박입니다. 또는 맏돌처럼 둥글납작하다고 해서 맏돌호박이라고도 한대요. 늙은 호박은 껍질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좋아 과육은 물론 잎, 줄기, 꼭지, 종자 등 모든 부분이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건강식품에도 당당히 뽑히기도 한 황금빛의 영양덩어리, 늙은 호박에 대해 다함께 알아보기로 할까요? 🍵



늪은 호박의 효능

항암효과 항산화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암세포발생과 성장을 억제하며 암이 퍼져나가는 것을 차단시켜 준다.

혈관질환 예방 칼륨성분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며, 베타카로틴 성분이 혈전형성을 막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변비예방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원활하게하여 배변활동을 도와준다. 또한 장내 좋은 균은 활성화시키고 나쁜 균은 배출하여 장 건강에 효과적이다.

눈건강 비타민A 함량이 높아 눈 점막은 촉촉하게, 눈의 노화는 늦추고 안질환 또한 예방해 준다.

피부미용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며 특히, 베타카로틴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방지, 손상된 피부세포를 재생시켜 피부를 탄력있게 해준다.

부종완화, 전립선염 치료 카로티노이드성분이 이뇨작용과 해독작용이 뛰어나 부종완화에 도움을 주고, 셀레늄성분이 남성 전립선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다이어트 100g당 27kcal로 열량이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 쉽게 포만감을 주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며 지방축적을 방지해 준다.

체력보강, 우울증 개선 비타민A와C는 면역력을 향상시켜 신체 저항력을 높여주며 소화가 잘되어 체력회복에 도움을 주고 L-트립토판이 기분을 좋게 해주어 우울증에도 도움을 준다.

두뇌발달 레시틴이 풍부하여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이 호박으로 뭘 만들어 먹을까요?

● 늪은 호박전

1. 늪은 호박을 반으로 잘라 씨를 뺀 후 껍질을 벗긴다.
2. 적당히 크기로 잘라 믹서기에 갈아도 좋고, 씹히는 식감을 원한다면 채를 썰어서 밀가루, 소금으로 반죽 후 동그랗게 한 입 크기로 부치면 된다.

● 늪은 호박 맛탕

1. 늪은 호박은 껍질을 벗겨 깍둑썰기 후 전자레인지에 익힌다.
2. 가열된 기름에 노릇하게 튀긴다.
이미 전자레인지로 익혔으므로 색만 낸 뒤 건진다.
3. 맛탕 소스(식용유, 설탕, 올리고당)에 튀긴 호박을 버무린 후 검정깨, 아몬드 슬라이스를 뿌려준다.

● 늪은 호박 수프

1. 늪은 호박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 랍을 씻은 후 전자렌지에 돌려 준다.
2. 편한 크기로 썬 양파 1개와 버터를 팬에 넣고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는다. 이때 소금으로 간을 해준다.
3. 믹서에 양파와 호박, 우유를 넣고 곱게 간다.
4. 냄비에 붓고 중불에서 은근히 끓여주면 끝!



소풍가듯 즐거운 명상 수업

제 2회 교사 소진예방 연수교육
<자기계발과 정신건강을 위한 자각명상> 을 마치고

예선숙 (경의고등학교 교사)

지난 7월 25일에서 26일까지 '자기 계발과 정신 건강을 위한 자각 명상' 연수를 받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소풍가듯 가벼운 마음으로 동료들과 함께 참석하니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좋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고맙게도 점심 공양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정갈하고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소박하지만 깨끗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숙소에 여장을 풀었고 연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은 낯선 몸 명상, 언어 치료 명상이 능행스님의 친근한 이야기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생활 명상이 뜻깊고 좋았습니다.

'두려움, 슬픔, 우울감 등 <불필요한 것들>은 나간다, 풀어진다, 사라진다. 행복, 달달함, 상쾌함 등 <필요한 것들>은 일어난다.' 와 같이, 마음을 비우고 채우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요즘도 가끔 마음 속에서 가르쳐 주셨던 명상을 해 보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듬 명상 수업을 통해서는 아주 오랜만에 나 아닌 타인과 호흡을 맞춰가며 웃고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진행되었지만 힘든 줄 모르고 몰입하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산길로 이어진 산책로를 걸으면서 평온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교실 요가 수업에서는 '남을 배려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상대방의 선택권을 뺏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특히 공감이 갔고,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깊이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행된 마지막 명상수업에서는 명상에 대하여 좀 더 학문적이고 깊이 있는 강의를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융, 프로이트, 아들러 등과 같은 심리학자들의 심리학적 접근 방식의 차이를 배웠고, '내 콤플렉스 극복하기'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 수용하기, 상처나 아픔을 준 사람 이해하고 용서하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지난 일을 돌아보기, 감사하기 같은 일상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 기간 내내 함께 저희를 도와주신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으로 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수가 계속 진행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사라져 가는 기억을 되살려 몇 자 적어 보냅니다. 능행스님 이하 모든 분들, 늘 건강하고 행복 하시기 바랍니다. 



차 한 잔의 여유와 같은 생사의 장

오형자 (45기 생사의 장 수료생)

낮과 밤이 둘이 아니며 삶 또한 죽음이 있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뉘가 있으랴.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과 알콩달콩 그렇게 오늘을 살지만 하루하루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 번쯤 진지하게 마주해보았는지….

가족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리고 때가 되면 그냥 미련 없이 엄뿔하며 가는 거지 뭐, 그렇게 당연한 듯 쉽게(?)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병들어 죽어가는 과정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직면하기가 싫어 마음 한 귀퉁이에 아예 한 칸도 내주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삶의 연속선상에서 그렇게 무상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 때 능행스님의 회보를 받으며 “생사의 장”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경험해보고 싶었다.

6박 7일간의 긴 여정.

새벽의 정적을 깨고 집을 나서며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하는 그런 여행이고자 엄마, 아내, 친구, 도반, 직장인 등… 이름표를 떼고 오직 존재로서의 시간을 보내려 길을 나섰다.

자비심은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니고 키워가는 것이라고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너를 위한 연민이 자비의 싹이 트는 인과응보를 심는 것이라고… 연습하고 노력하는 게 바로 수행이라고, 그러기 위해선 나의 인성이 갖춰져야 하고 자신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내 앞의 한 사람에게 경청할 수 있는 사랑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생사의 장” 이 시작되었다.



나의 내면에는 수많은 아이가 살고 있었다.

섭섭함, 허탈감, 수치심, 자책감, 살의, 증오감, 무력감 등등……. 무의식 속에 꾀꾀 숨어있는 멈춰버린 시간들과 마주하는 시간.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이기보다는 못난 내 모습이라도 있는 그대로 존재의 존귀함을 느꼈다. 생물학적으로도 5억분의 1로 태어난 엄청난 확률이지 않았는가. 그것도 한 번에 시도하여 태어난 것도 아니고 수없이 도전 하여 태어난 생명인데 어찌 어제의 정보로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있는 그대로 존재 그 자체고 존귀한 것을. (천상천하 유아독존)

잠자는 나를 깨우는 소중한 시간들…….

온 존재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했고 그 사랑을 다시금 순환되게 되돌려 줘야함을 스스로 알게 해주는 가슴 뛰는 체험의 시간들, 죽음도 그렇게 온 존재가 사랑하고 있다는 “신뢰감”… 소풍가듯 떠날 수 있게 하는 남은 자들의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삶과 죽음이 인드라마처럼 서로를 비춰주며 남의 일이 나의 일이고 나의 죽음이며, 죽음의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깊은 한 마디 한 마디.

그리하여 우리는 인을 심어 과가 맺도록 응당히 보살피는 자비를 키워야 함을 가슴 깊이 느끼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행여 콩을 심어 놓고 팥이 나기를 기다리지는 않았는가? 한 번쯤 뒤돌아보는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릴미 씨 부부는 더 나은 삶을 찾아 스리랑카에서 한국까지 온 근로자 부부입니다.

아이를 원했지만 계속해서 뱃속의 태아가 유산 되는 슬픔을 겪던 부부에게 뜻 깊은 인연이 닿아 릴미 씨는 정토마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근무하던 릴미 씨에게 부처님의 선물 처럼 사랑의 결실이 안착한 것도 그 때였습니다.

허나 그 기쁨도 잠시, 릴미 부부의 아이들은 빛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었던 걸까요? 너무 이르게 세상에 나온 쌍둥이는 7개월 만에 나온 칠삭둥이 조산아였습니다.

릴미 씨도 조산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하혈이 멈추지 않아 계속해서 병원 치료가 필요한데, 인큐베이터 안에서 3개월을 자라야 하는 어린 쌍둥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해 병원비만 3천만 원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 남편 혼자 버는 얼마 되지 않는 박봉으로는 세 사람의 의료비를 감당하기에 막막한 지경입니다.

쌍둥이의 자그마한 심장 소리에 기뻐하다가도 그들을 짓누르는 무거운 현실에 어렵고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릴미 씨 부부에게, 바로 곁에 따뜻한 이웃이 있음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큰 희망이 될까요? 일찍이 부처님께서도 몸과 마음이 아파 고통 받는 중생들을 보살피는 것은 곧 붓다를 보살피는 일과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능행스님의 두 작은 생명을 위한 기도에, 후원자님들의 마음을 모아 릴미 씨 부부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세요.

릴미(가명) 씨 부부에게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 ● ● 후원안내 ● ● ●

(예금주: 정토마을)

의약품 후원 계좌 | 농협 351-0811-2410-83

후원 문의 | 정토마을 사무국 052-255-8588

입금하신 후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연꽃 같은
그윽하고 감미로우면서도 달달한 향기가
연기처럼 자욱히 일어나는
그런 연꽃 같은 그대여

연분홍 수줍게 아름다운 당신의 꿈
맑은 향 허공에 아낌없이 내어주는
보살의 꽃 그대에게

여섯 바라밀을
오늘도 절하며 배웁니다

- 능행스님의 글 중에서



윤미자 님, 김병갑 님, 부산암불회(이광수 님), 혜선스님, 혜솔스님,
불교총지총 통리원장 인선스님, 그리고 익명으로 후원하신 많은 분들께서
소중하고 소중한 마음 내어 주셨습니다.
햇살만큼 따스한 자비의 마음 고맙습니다.

정토발원문(淨土發願)

자비광명 배푸시어 염불중생 제도하는
 우리스승 아미타불 찬탄하고 찬탄하리
 밀려오는 무량자비 인연중생 해탈얻네
 대자대비 아미타불 찬탄하고 찬탄하리

이와같은 염불공덕 극락가는 양식되어
 온갖은혜 두루갓고 모든죄업 다없애리
 내모습을 보는이는 염불발심 모두내어
 중생의몸 마치올제 극락세계 함께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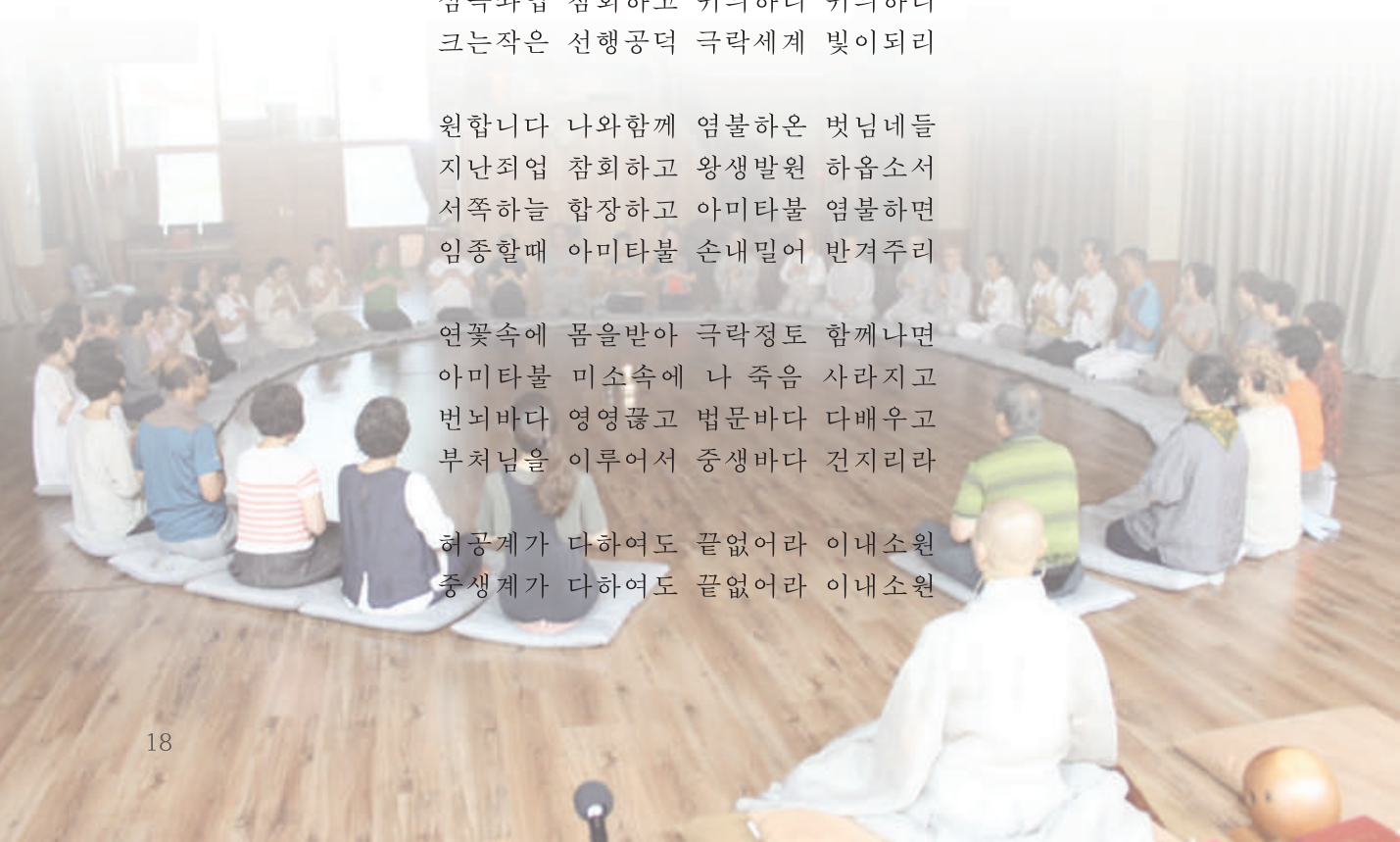
연꽃나라 서방정토 나의부모 구품연화
 송이송이 필적마다 아미타불 바로뵈고
 바른진리 문득깨쳐 보살들의 벗이되는
 욕심변해 자비되고 번뇌변해 지혜되네

시방삼세 부처님네 셀수없이 많다해도
 으뜸일세 아미타불 중생제도 연꽃나라
 삼독좌업 참회하고 귀의하리 귀의하리
 크는작은 선행공덕 극락세계 빛이되리

원합니다 나와함께 염불하온 벗님네들
 지난죄업 참회하고 왕생발원 하옵소서
 서쪽하늘 합장하고 아미타불 염불하면
 임종할때 아미타불 손내밀어 반겨주리

연꽃속에 몸을받아 극락정토 함께나면
 아미타불 미소속에 나 죽음 사라지고
 번뇌바다 영영끊고 범문바다 다배우고
 부처님을 이루어서 중생바다 건지리라

허공계가 다하여도 끝없어라 이내소원
 중생계가 다하여도 끝없어라 이내소원



정토마을 염불禪 수행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현재의 삶 안에서는
기쁨과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이 몸을 벗어나는 그 때가 되면 자연스러운 벗어남을 통해
정토에 왕생하는 복을 얻게 되는 염불 수행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청주정토마을 능행스님과 함께하는 염불禪수행 안내

일 시 : 매월 셋째주 토요일 AM 9시 ~ 일요일 PM 1시 (1박 2일)
준비물 : 천주염주, 개인 물병, 무릎담요, 염불선복 또는 편안한 복장
동참비 : 5만원
장 소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초정로 856-19
접수문의 : 043-298-2258, 010-7305-4935 무량지
전날 입교 가능, 미리 접수 부탁드립니다.

- ◎ **찾아오시는 길** 청주가경터미널 또는 KTX, SRT기차
오송역을 이용하시면 정토마을 차량을 운행합니다.
- ◎ **정토마을 차량 운행시간** 청주가경터미널 오후 3시, 오후 5시20분
오송역 오후 6시



청주정토마을 금요법회 안내

정토마을에 인연있는 자원봉사자분들과 후원자분들을 모시고
행복한 나의 모습을 찾아서 한 걸음씩 나를 찾아가는 법문과 수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덕스님과 함께 하는 마음의 공부 금요법회에 초대합니다.

일 시 : 매월 넷째주 금요일 오전 10시 누구나 참석 (전날 입소가능)
장 소 : 청주정토마을 법당

- ◎ 청주정토마을 차량 운행합니다.
차량 이용하실 분은 전화주세요. 043-298-2258

묘법연화경 제1권

第四. 신해품

서봉반산(瑞峰盤山) 스님

제 4 신해품

첫째 주제. 수보리 등 4대 제자들의 깨달음

1) 아라한들의 신앙고백

앞에서 세 개의 수레로 소송법을, 대백우거大白牛車로 일승법을 비유하는 것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런 비유법문은 결국 법화경 속에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가 항상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려는 것일 겁니다. 다음 신해품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첫 장면에서 사리불 다음으로 뛰어난 제자들인 4대 아라한이 부처님께 신앙고백을 하는 광경입니다.

4-1.

“저희들이 대중의 상수제자로 나이 들고 오래되어 스스로 「이미 열반을 얻었다」고 하여 「더할 바 일이 없다」생각하고, 다시 나아가 아닛다라삼악삼보디를 구하려 하지 않았나이다. 부처님이 옛적에 법을 설하여 이미 오래 되었사오니, 저희들이 그 때 자리에 있었지만 몸이 피로하고 게을러서 다만 공공함, 모습 없음, 지을 것 없음만을 생각하고 보살법과 유희신통과 부처님 국토를 깨끗이 함과 중생을 성취케 하는 데는 마음으로 즐겨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른바 비설주譬說周의 두 번째 비유입니다. 흔히 거지 아들의 비유라 하는데 앞의 불난 집의 비유와 달리 제자들이 자신들의 심경을 빗대어 말한 비유이니, 부처님의 비유설법이 아니고 제자들의 신앙고백에서 나온 비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2) 네 분의 존자尊者 깨달음을 언다

이처럼 신해품은 수보리 등 4대 아라한들이 자신들의 신앙고백을 통해 그동안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1불승에 들어감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의 법설주에서 사리불이 깨침을 얻음에 이어 비설주譬說周에서 네 분의 제자 곧 수보리.가전연.마하가섭.목건련 존자께서 깨달음을 얻을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인연설주因緣說周에서 부루나 등의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은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비유품에서 사리불을 시작으로 점차 모든 제자에게 수기 내리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너희가 머지 않은 장래에 부처가 될 것이니라.” 불교에서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1) 해공제일解空第一 수보리 존자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에는 부처님의 십대제자 가운데 해공제일解空第一 수보리須菩提 존자가 부처님께 법문을 청하여 설해진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반야부 법문을 21년간이나 설하셨습니다. 그러니 법을 청한 수보리 존자는 어느 제자보다도 큰 제자였습니다. 수보리는 바로 급고독 장자의 동생인 수마나의 아들로 사위국에서 태어났으며, 수보리는 급고독 장자가 건립한 기원정사에서 첫 법회를 여는 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발심 출가합니다.

그런데 수보리는 부처님께 귀의하기 전에는 성격이 모질고 포악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요. 이런 수보리에게 부처님께서는 ‘자애선정慈愛禪定’ 공부를 시킵니다. 수보리는 자비심을 닦아 아라한과를 얻고 십대제자 가운데 가장 우수한 해공제일 제자가 됩니다. 수보리는 자애선정을 닦아서 시비가 뚝 끊어진 이후부터 모든 이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무쟁삼매제일無諍三昧第一’이라고 했으며, 다툼이 없어진 근원을 찾아보니 공안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한 결과였습니다.

4-2.

오늘날 저희들이 부처님의 말씀 듣고
환희하고 용약하여 미증유를 얻나이다.
성문들도 성불한다 부처님 설하시니
위 없는 보배더미 안 구해도 절로 얻네.
我等今日에 聞佛音教하옵고 歡喜踊躍하야 得未曾有호이다
佛說聲聞이 當得作佛이라하시니 無上寶聚를 不求自得이니다

(2) 두타제일 마하카샤과摩訶迦葉 존자

인도의 마가다국 왕사성 근교의 바라문촌에 핏파리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어렸을 적부터 종교심이 많았는데, 양친兩親을 여의고 난 다음에는 출가를 하여 수행에 전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에게 결혼할 것을 권하는 부모님에게 한 가지 타협안을 내 놓습니다. 즉 핏파리는 순금으로 실물 크기의 예쁜 여성상을 만들게 해 가지고, 이러한 이상적인 여성이라면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운인지, 불행인지 꼭 닮은 여성이 있어서, 핏파리의 부모는 서둘러 결혼을 시켰습니다. 핏파리는 20세였고, 아리따운 아내는 바들러였어요. 양친은 돌아가셨고 그의 나이 32세가 되었을 때, 핏파리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흙더미 속에서 한 마리의 작은 벌레가 머리를 내밀었어요. 공중으로부터 작은 새가 내려와 그 벌레를 탁 쪼아 가지고 다시 날아가니, 부처님의 사문유관상과도 닮은 모습입니다. 그는 부처님을 만난 후 8일 후에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마하가섭은 <두타제일>로 수행하는데 가장 열심인 분이고,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든 상태에서 의발衣鉢을 전하는 전법傳法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주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신 삼계의 도사 사생의 자부

1) 거지아들의 비유[窮子喻] ②

(1) 어렸을 때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父子相失喻]

앞에서 ‘구하지 않은 무량한 보물을 절로 얻은 것[無量珍寶 不求自得]’이란 내용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 바로 ‘거지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설법이 중생의 수준에 맞추어서 낮은 단계에서 점차로 높아져서 나중에는 1불승의 가르침을 부촉하는 것이라고 비유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째,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헤어지는 비유[父子相失喻]부터 시작합니다.

4-3.

“어떤 사람이 나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가 다른 지방에 살기를 10년, 20년 내지 50년을 지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매우 빈궁하여, 사방으로 의식을 찾아 헤매면서 우연히 본국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오랫동안 다녔으나 만나지 못하고, 중도에 어떤 성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부자가 되어 재물이 한량없으니, ……”

아버지는 열심히 정진하여 부자가 되었으나 아들은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어리석게 살았으니 가난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생의 가장 근본문제를 해결하여 부처가 되었지만 중생은 복덕은 쌓지 않고 탐·진·치만 일삼으니 마침내 죄만 짓고 거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2) 품팔이로 다니다가 우연히 아버지 집에 오다[父子相見喻]

4-4.

“세존이시여, 한편 빈궁한 아들은 품팔이를 하며 이리저리 다니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사는 집의 대문 앞에 이르러, 멀리 그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는 사자상獅子床에 걸터앉았는데 보배 궤로 발을 받쳤고, 여러 바라문과 찰리와 거사들이 모두 공경하여 둘러 모셨으며,……. 「저 이는 아마 왕이거나 혹은 왕족이리니 내가 품팔이 할 곳이 아니로다, 다른 가난한 마을에 찾아가서 마음대로 품을 팔고 의식을 구함만 같지 못하리라. …….”

이어서 둘째,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만나는 비유[父子相見喻]입니다. 위에서는 아버지가 자식 생각을 항상 하면서 유산상속을 엄두에 두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선 의식을 구해야만 했고, 마치 깨달음은 구할 수도 없고 먹고사는 데 몰두하는 범부들과 같지요. 교리적으로 생각하면 마음 속에 부처가 항상 존재하고 있으니, 늘 만나보고 있으면서도 어리석은 중생은 불법이 멀리 있는 줄로만 알고 여기저기 다니며 신발만 닦게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일입니다.

(3) 옆 사람을 보내어 급히 쫓아 데려오게 하다[父遣人追誘譬]

4-5.

“곧 옆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도록 하였나이다. 그 때 한 사자가 달려가 불드니, 그 빈궁한 아들은 놀라 원망스럽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붙들어 가나이까?」하므로 사자는 더욱 단단히 붙들고 강제로 데려오려 하자 그 때 빈궁한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였나이다. 「나는 아무 죄도 없이 붙잡혔으니 반드시 죽는 것이로다.」고, 그렇게 생각하니 한층 더 놀랍고 무서워 땅에 넘어져 기절해 버렸나이다.”

이어서 셋째, 아버지가 사람을 시켜 꼬여 오는 비유[父遣人追誘譬]를 봅시다. 이렇게 처음에는 강제로 데려오려 하다가 실패하고는, 그때사 아들의 생각이 하열한 줄을 알고 고민하다가 가만히 방편을 써서 번뇌를 끊게 하는 소송법인 아함경 등을 설하여 차츰 가르쳐서 중생의 근기가 성숙하기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4-6.

“그 때 장자는 그 아들을 타일러서 데려 오려고 방편을 써서, 모양이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두 사람의 사자를 가만히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나이다. 「너희는 거기에 가서 그 빈궁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저기 일할 곳이 있는데 품삯은 다른 데보다 배로 준다』고 하고, 만약 그가 허락을 하거든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되, 혹 『하는 일이 무엇이나?』고 묻거든, 『거름을 치우는 일로 우리 두 사람도 그대와 함께 그 일을 한다고 하여라.』…….”

요즘처럼 영리한 중생들이라면 눈치를 차렸을지도 모르지만, 경전 속에서는 아직도 문밖 초암 草庵에 서서 주인집에 일을 해주고 품삯이나 벌려고 하는 어리석은 범부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존께서 40년 동안을 중생의 근기가 성숙하기를 기다린 것이니, 이 모두가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경문을 봅시다.

(4) 내어주고 받아들임을 내가 모두 알아서 하라[委知家業譬]

이제 중생의 근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것을 넷째, ‘거지아들이 가업을 익히고 길들이는 비유[委知家業譬]라 부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궁자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장자는 동사섭同事攝으로 궁자가 어서 성숙하기를 기대하면서 집안 살림을 모두 맡기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궁자는 아직도 내 집인 줄 모르고 품팔이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대승법에 받을 들여놓긴 하였지만 아직은 적극적으로 보살도를 실천하지는 못하는 단계입니다.

4-7.

“「너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항상 여기에서 일을 하여라.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지 않으나. 그러므로 다시 걱정하지 말고 편히 잘 있거라.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나이가 늙었고 너는 아직 젊었구나. 너는 일할 적에 항상 속이거나 게으르거나 성내거나 원망하는 말이 없으니, 다른 일꾼들처럼 나쁘지가 않다. 이제부터는 나의 친 자식과 같이 생각하겠노라.」하면서 장자는 이름을 다시 지어주고 아들이라고 불렀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때 장자는 병이 생겨 죽을 때가 멀지 않은 것을 알고 빈궁한 아들에게 말하였나이다. 「나에게는 지금 금 은 보배가 많아 창고마다 가득하므로 그 속에 많고 적은 것이라든지 주고받을 것을 네가 다 알아서 처리하라.」”

친자식처럼 이름도 지어주고 귀염을 받지만 아들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인 줄 알아보고 게으름 부리는 것보다 열심히 정진하여 명실상부한 후계자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 되겠지요.

서양종교에서는 중생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고, 어린 양이라는 생각을 영원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날 불자님들은 불교를 신앙하는 순간 불법의 주인이요 사찰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며 기독교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종으로 피조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지키는데 비해 불자들은 스스로 주인인 줄 모르고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소속감을 쉽게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내가 본래로 부처였다는 것을 모르는 까닭이겠지요. 어쨌든 불교는 이런 기간을 초기대승이 설해던 21년의 반야경을 설하던 시기라 말합니다.

(5) 내가 소유한 모든 재물은 모두 아들의 것이다[領解受付譬]

이제 접차로 아버지인 줄 알아보게 되었을 무렵, 장자는 시종과 신하들을 모두 불러모아 전 재산을 물려줄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중생의 근기가 성숙되어 세존께서 법을 부촉할 때가 되어 법화경을 설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다섯째, 궁자가 깨달아서 전 재산을 물려받는 비유[領解受付譬]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남은 8년간의 법화열반시가 되는 것입니다.

4-8.

“그들이 다 모인 뒤에는 이렇게 선언하였나이다.「여러분은 마땅히 아시라! 이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이를 낳았으나 어느 성중에서 나를 버리고 도망하여 50여년 동안 외롭게 떠돌아다니며 고생을 했소. 그의 본래 이름은 아무개였고 내 이름은 아무개였소. 이때 빈궁한 아들은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는 크게 기뻐 <미증유>함을 얻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본래부터 바라는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이 보배창고가 저절로 이르렀구나.」 하였나이다.”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 엄청난 보배들이 저절로 이르렀구나」 라 한 것은 본래로 내 것이었으며 나는 원래로 장자의 아들임을 말하는 것인 동시에, 중생은 모두 본래로 부처였으니 이제 1불승의 법을 알았으므로 불법이 모두 내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에서 거지아들은 지금껏 부처님의 갖가지 설법과 유인에도 생사의 세계에 빠져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잘못 아는 범부들이라면, 고생하는 중생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40년을 기다리며 중생을 성숙시키는 부처님의 마음이 바로 아끼는 생각 없이 당신의 깨달음을 그대로 다 물려주는 자비하신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2) 부처님은 여러 시기로 나누어 설법하신다[五時教判] - 5시 5미五時五味의 관계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궁자의 비유’는 다섯 개의 작은 비유로 나누어 천태종의 5시교판五時教判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또 이를 우유의 다섯 가지 맛과 연관지어 ① 우유맛(乳味) ② 타락맛(酪味) ③ 생소맛(生酥味) ④ 숙소맛(熟酥味) ⑤ 제호맛(醍醐味)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화엄경을 생우유로 법화경을 제호에 비유하는 것은 그 속에 다 들어있지만 중생이 부처님의 깊은 뜻을 알아듣게 하는 데는 법화경이 제일이라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 주제. 세존의 크신 은혜, 억천 겁에 누가 능히 갚으리까.

신해품의 뒷부분 계송에서는 이런 부처님의 자비를 뼈저리게 느낀 나머지 부처님께 감사함을 최상의 표현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상하게 중생을 이끌어 주시는 부처님의 모습, 때로는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편안한 어머니의 품속 같이 보살펴 주시니, 어찌 부처님 은혜를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은혜에 대한 계송을 보십시오.

4-9.

세존의 크신 은혜 희유하옵나이다.

중생을 제도하사 이익 얻게 하시오니

억천 겁에 그 은혜를 누가 능히 갚으리까.

世尊大恩이시여 以希有事로 憐愍教化하여 利益我等하시니
無量億劫에 誰能報者리오

4-10.

수족 되어 받들고 머리 조아 예경하며

온갖 일로 공양해도 그 은혜 못 갚으며,

머리 위에 받들거나 등에라도 업고 다녀

항하사 오랜 세월 마음 다해 공경하고,

手足供給하고 頭頂禮敬하며 一切供養이라도 皆不能報하며

若以頂戴하고 兩肩荷負하여 於恒沙劫에 盡心恭敬하며

4-11.

이러한 여러 일로 항하사 오랜 겁에

정성 다해 공양해도 그 은혜는 못 갚으리.

如斯等事로 以用供養을 於恒沙劫이라도 亦不能報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과거 보살수행 시절 수많은 선지식에게 갖가지 방법으로 은혜에 보답하던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중생의 근기가 성숙되도록 기다려주고,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알기 쉽게 비유와 인연설화로 쉽게 가르쳐준 부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부처님의 은혜를 잠깐인들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두전단 : 인도 우두산에 나는 향나무 이름.

향기가 진하고 오래도록 없어지지 않아서 불상 제작 등 불구佛具로 많이 사용됨.

자원봉사자 모집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 서로의 생명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

정토마을은 후원과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끌어집니다.
환우들은 자원봉사자의 미소에 기운을 내고, 정토마을의 구석구석은 당신의 동참으로 밝아집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한 자원봉사를 통해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단위 자원봉사

09:00~14:00, 13:00~17:00, 17:00~21:00

일일 자원봉사

10:00~17:00(주간), 20:00~익일 05:00(야간)

주간 자원봉사

주 1회

장기 자원봉사

도움분야 비품관리, 병원 실내외 청소, 환우 목욕, 방문객 병원 안내, 도서 나눔, 환우 수발라운딩, 환우들과 함께 산책, 치유방송 지원 봉사, 행정 지원 봉사, 화훼(정원수 관리)

재능기부 임상기도, 임종 돌봄(교육 이수자 가능), 집단·개인 공연(음악 악기 춤 등), 아로마 치료, 이·미용, 물리치료분야(카이로프랙틱, 온열 치료, 갈바릭 치료), 의사선생님 주말자원봉사(양·한방, 치과, 이비인후과)



장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전 화 052)255-8408 담당자 김은구 사회복지사



디지털불교대학총동문

- 설동호 회장

매월 2주차(일)마다 정기적으로 항상 회원님들이 참여하여 도움을 주시는 디지털불교대학총동문 봉사단이십니다. 병원 및 교육원 미세먼지 청소, 환우 식사 보조, 주변환경 정비 등의 방면에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념회

- 정옥란 회장

매월 정기적으로 항상 회원님들이 참여하여 도움을 주십니다. 병원 및 교육원 미세먼지 청소, 환우들의 말벗과 산책 보조 등으로 아름다운 봉사정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불회

- 황보한 회장

매월 정기적으로 늘 회원님들이 참여하시어 도움을 주시며, 매월 정기 물품 후원 또한 챙겨 주십니다. 병원 주변 미세먼지 청소, 환우들의 휠체어 이동 보조 및 식사 보조 등으로 푸근한 온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사랑을 보내고…….

정토마을 호스피스병동 사별가족
김준영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내 사랑을 먼 곳으로 보내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지 벌써 12주째 보내고 있다. 벚나무 가로수 잎이 노랗게 낙엽으로 물들어 떨어지는 모습에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해보게 된다. 순수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도 끊임없이 물욕을 쫓아 치열하게 살아온 지난 시간들에 많은 회한이 밀려온다. 삶의 전쟁터에서 조금씩 내려놓고 즐겁고 마음 편한 삶을 향해 가고 있던 어느 날 2016년 2월 25일 사랑하는 아내는 폐암이라는 악몽 같은 선고를 받았다.

어느 날 새벽 2시경 심한 기침과 함께 목에서 올라오는 선홍색 피덩이에 놀라 119 응급차에 실려 서울 00병원 응급실로 갔다. 당장 응급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고 다음날 한쪽 폐를 잘라내는 수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8시간의 수술 후에 다시 보게 된 아내의 모습에 흐르는 눈물밖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항암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사 진단에 아무 대담도 할 수 없었다. 항암치료를 거부하는 아내를 퇴원시키고 집으로 와서 두 달 쯤 지났을 때 복부 통증을 느끼며 다시 병원에 갔을 때 소장과 신장에 전이되어 우선 소장 수술만 했다. 보기 드문 급성 악성종양이란다.

담당교수와 면담하는 날 아내는 사형선고 같은 말을 들어야했다.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고 호스피스병원으로 가라 한다. 의사를 붙들고 살려 달라고 살길이 정말 없겠느냐고 매달렸지만 소용없었다.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에서 강력한 항암제를 한번 써 보자고 해서 한 달에 두 번, 항암주사를 맞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헛바닥이 갈라지고 끊임없는 구토를 하고 더 고통스러운 날이 계속 되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다시 중환자가 되고 말았다. 그때부터 가슴 졸이며 환자와 함께 불면의 날이 계속되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상시험약을 써보자고 한다. 검사기간이 오래 걸리니 본인부담으로 해야 하는데 한 달 약값이 800만원 정도 된단다. 본인은 안하고 그냥 죽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두 번이라도 해보자고 달라고 설득해서 약을 쓰기로 했다. 한 달 후 검사결과 다행히 더 이상 진행은 막았단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지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또 치료비는 어찌해야 할지 걱정은 되었지만 하는데까지 해보기로 했다. 그렇게 3개월 시한부선고를 받았던 아내는 2016년을 무사히 살아냈다.

바람 앞에 촛불같은 생명을 지키며 2017년 봄을 맞이하였다. 그러던 4월 어느 날부터 또다시 하복부통증이 시작되었다. 00병원에서 검사결과 이제 임상약도 한계가 왔다고 한다. 그렇게 다시 입원한 날부터 밤낮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날이 계속 되었지만 여러 가지 통증약도 소용이 없었다. 2017년 4월 16일 담당교수의 최종진단이 내려졌다. 또 다시 호스피스병동으로 가라고 한다.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호스피스병동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주어진 운명이라면 받아 들이기로 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덜 고통스럽게 죽는 게 소원이라는 것,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 드리는 것.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남은 시간 마무리하자고……. 지금까지 절에 다니며 부처님 앞에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해 본 적은 없었다. 그날부터 아내는 불경을 들고 읽고 쓰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고통과 싸우고 있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고 있을 때 자원 봉사하러 오신 어느 보살님으로부터 정토마을 이야기를 들었다. 능행스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정토마을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정토마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아내는 참 행복해했다. 정성을 다해 기도해 주시던 능행스님과 능인스님, 해맑은 얼굴로 병실에서 웃음주고 놀아주시던 도우스님, 통증 잡느라 매일 고민하시면서 너무너무 애써주신 류정임 주치의선생님 그리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던 여러 선생님들 모두 너무나 감사한 분들 덕분에 죽음을 앞에 두고도 평안했다 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 받으면서도 가끔씩 문득문득 하염없이 우는 모습에 역장이 무너지곤 했다.

어느 날 옆방에 젊고 건장한 모습의 잘생긴 환자가 왔다. 서른아홉살이라 했던가. 너무나 순수하고 착하게 생긴 눈이 커다란 젊은 아내가 간병하고 있었다. 내 사람도 안타깝지만 그 젊은 부부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 아빠 옆에서 천진난만하게 노는 어린 아들 딸도 안쓰럽고, 공양간에서 숟가락 들고 눈물만 똑똑 흘리던 그 젊은 아내.

그 부부를 보며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은 서른아홉살의 세상을 살아왔지만 저 젊은 사람은 당신 나이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냐고 그만큼 더 살았으니 감사하지 않느냐고……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아내를 보며 또 울어야 했다.

앞 병실에 계시던 보호자와 옆 병실의 젊은 아내, 나 이렇게 셋이 매일 공양간에서 함께 밥 먹으며 울고 웃고 그렇게 또 인연이 되었다. 아내의 몸은 아위어갔지만 얼굴은 평안해보였다. 그리고 앞 병실에 어르신이 먼저 부처님 곁으로 가셨다. 아내도 며칠 못 버틸 것 같아보였다. 이제는 나와 눈 마주칠 힘도 없나보다. 숨소리도 거칠다.

어느 날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잠들어 있던 아내 입에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말하기도 힘들어 하던 아내가 너무도 맑은 목소리로 나무아미타불을 빼가 양상한 두 손을 모은 채 끊임없이 부르고 있었다. 너무나 신기한 모습에 동영상을 찍어 능인스님께 보내드렸더니 참으로 경이롭다 하신다. 깨어난 후에 부처님을 뵈었다고 물어보았더니 너무도 환하고 찬란한 빛 속에 두 분의 부처님을 보았다고 한다. 기도 잘 하고 있으라고 조금 더 쉬고 있으면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했다한다. 스님께서서는 아미타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이라 하신다. 또 잠시 눈을 감고 잠에 들려 하면 눈앞에 맑은 물이 흐르고 예쁜 꽃들이 피어있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했다. 부처님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나보다. 아미타부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나 보다.

그렇게 내게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2017년 7월 20일 새벽 4시에 사랑하는 아내는 스님의 기도를 받으며 부처님 곁으로 갔다. 부디 이승에서의 미련, 가슴 아플 일, 억울한 일 모두 다 잊어버리고 부처님의 빛을 따라 밝은 세상으로 가길 바라고 바랐다. 마지막 가는 날도 너무도 많은 스님의 보살핌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다. 능행스님께서 꽃으로 장식한 관에 누워 예쁜 수의를 입고 도감스님의 기도소리 들으며 선생님들이 꽃 한 송이 한 송이 관속에 넣어 주시며 같이 기도해주시던 모습이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다. 가면서 참 행복했으리라 믿는다. 이제 49재도 지나고 아내의 냄새, 숨결, 손때 묻은 유품들 정리하며 매일이 힘들지만 살아있는 나는 또 살아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을 받아 들여야겠다.

“다 부질 없는 거야.”하시던 능행스님 말씀이 떠오른다. 살아가는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장례식장까지 오셔서 기도해 주신 도감스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능행스님과 함께 하는
인도 보드가야 불가촉천민을 위한
의료봉사 의약품 후원 안내



“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에서 진행하는
2017 인도 보드가야 달리트(Dalit, 불가촉천민) 의료봉사의
자원봉사자 접수와 부탄 불교성지순례 접수가
많은 분들의 성원 속에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봉사에 필요한 의약품 중 상당수가
(구충제, 결핵약, 영양제 등)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으로 달리트들의 오랜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갖은 차별 속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인도 불가촉천민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보듬어 주실 분들의
많은 후원 바랍니다. ”

● ● ● 후원안내 ● ● ●

(예금주: 정토마을)

의약품 후원 계좌 | 농협 351-0811-2410-83

후원 문의 | 정토마을 사무국 052-255-8588

입금하신 후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삶과 함께하는 정토의 세계

정토마을 능행스님

불교는 큰 가지와 잔 가지, 그리고 잎이 나날이 새롭게 자라나는 커다란 나무와도 같다. 즉 대승불교가 근본불교의 작은 나무에서부터 성장해 온 결과라면, 「아미타경」은 대승의 수행자들이 불교의 울창한 잎을 만들 때 등장시킨 대표적인 대승경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미타경」은 초심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수행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그것을 수행하여 일상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실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는 수행은 전념과 집중의 에너지로서 신앙심을 증대시켜 준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에너지를 유지하게 되면 일상은 매우 심오하면서도 편안함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정토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집필한 것이다.

우리의 열망

인간으로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열망은 사랑과 이해가 깃든 안전한 환경을 찾는 것이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다. 우리 모두는 자타의 심신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소를 건립할 꿈을 꾸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와 사랑을 진전시키고, 고통을 변형시켜 행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수행공동체를 염원하고 있는데, 그곳은 다름아닌 아미타불의 서방정토 극락세계인 것이다.

정토를 외부에 있는 실체, 다시 말해 서쪽 멀리 떨어진 장소라고 보는 것은 초심자에게 어울리는 생각이다. 진심 깊은 불자라면 마땅히 부처님과 그 부처님이 계시는 나라가 바로 우리들 마음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세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옛 조사스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을 잘하면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건 간에 아미타부처님을 뵈옵고 정토를 체험할 수 있다.”

정토(수행공동체)의 성립

아미타부처님의 서방정토 극락세계란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사랑과 안전이 보장되고 더불어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된 곳을 말한다. 우리 모두는 아미타불과 똑같은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편안하게 머무르며 사랑하는 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신뢰·자유와 사랑, 평화가 항상 깃들 수 있는 공동체를 염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망은 누구나 갖고 있음에도 수행공동체의 껍데기를 꾸미는데 너무 많은 힘과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 채 본질을 망각해 버리기 일쑤다. 수행공동체가 갖추고 있어야 할 본질은 평화, 기쁨, 화합, 청정, 그리고 명석함이다. 그 본질이 갖추어진 완벽한 장소가 아니라면 우리는 곧 공동체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외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골머리를 쥐어짜고 물질을 쌓기 위해 뛰어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함께 수행하고자 찾아온 사람들과 우리 자신까지도 보살필 시간을 얻지 못하고 형식만 추구하다 그 속에 갇혀 허우적대고 말 것이다.

수행공동체는 꼭 거대한 사찰이나 수도원만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넓게는 국가와 사회로 확대해 볼 수도 있고, 작게는 직장과 학교 그리고 가정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수행공동체의 일원이며, 수행공동체의 본질인 평화와 기쁨, 화합과 청정, 그리고 명석함에 대해 깊이 고뇌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비록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견뎌야 하는 사바세계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당당하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존재하며 정답게 말을 건네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지금 머무는 자리가 곧 정토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물질을 토대로 한 형식은 불에 타 없어지면 그만이지만, 수행을 통해 얻어진 본질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무량한 광명이며 생명의 에너지이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아미타불과 정토는 우리 마음의 소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구품연대

정토에는 구품연대(九品蓮臺)가 있다. 정토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수행의 단계에 따라 구품연대 가운데 한 곳에 앉게 되는 것을 상징화한 것이다.

「관경(觀經)」에 따르면 구품연대는 아홉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등급은 하품하생(下品下生)이며, 가장 높은 깨달음을 가진 존재는 상품상생(上品上生)이 된다고 한다.

즉 우리가 비록 사바세계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각자가 수행한 평화와 에너지에 의해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며, 특히 정성을 다해 아미타부처님을 염하면, 전념의 상태에 들게 되어 반드시 상품상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연꽃은 아름답게 피어 연못을 장엄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더러운 진흙 밭을 딛고 거기에 있다. 깨끗한 모래밭에서는 연꽃을 피울 수조차 없다. 오로지 진흙 밭이라야 하는데, 이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바세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연꽃은 사바세계를 견디고 살아낸 아름다운 영혼의 땅인 정토를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수행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비유 가운데 하나며, 그 연꽃이 빨리 자라느냐 천천히 자라느냐 하는 것은 일상 수행의 질에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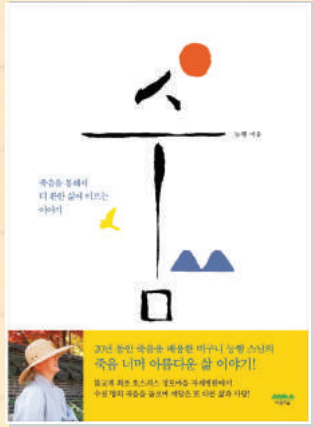
만약 우리가 수행공동체 안에서의 본질을 항상 일깨우며 살아감과 동시에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수행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수행공동체 안을 연꽃 향이 가득하게 만든다면 그곳이 곧 서방 정토의 구품연대인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피어난 작은 연꽃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염불하면, 작은 연꽃 봉오리가 정토에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염불수행을 하면 연꽃 봉오리는 점점 더 자라나게 될 것이다. 연꽃은 삶의 결실이자 수행의 꽃이다. 우리의 수행이 좋은 결과를 맺게 되면 우리는 그 연꽃을 통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일상 수행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낮은 등급, 중간등급, 또는 높은 등급의 연꽃이 된다. 그 연꽃은 불국토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연꽃은 그 마음을 수행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연꽃 봉오리가 불국토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염불하는 자세로 숨을 들이쉬고 미소를 지으면 평화와 기쁨의 연꽃 봉오리가 자기 속에 나타나 마음속에서 활짝 피게 된다. 그것은 사랑과 평화의 꽃이다. 우리는 꽃이라는 이미지를 써서 평화와 행복을 상징한다. 연꽃을 감상하기 위해 미래를 기다려야만 하고, 그 연꽃을 감상하기 위해 서방 극락세계에 가는 것을 미루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있는 정성을 다해 그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즉 전념하는 자세로 한 번 호흡을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평화, 기쁨, 그리고 자유를 나타내는 연꽃을 바로 이 자리에서 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죽음을 통해서

더 환한 삶에 이르는 이야기

숨

능행스님 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평소에도 중요하지만, 생의 마지막에 다다를 때 더욱이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 원망과 미움, 분노와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오롯한 평화와 평안, 그리고 또 다른 생에 대한 설렘만 있어야 한다. 헤르만 헤세가 <생의 계단>이라는 시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시작에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고 이어짐이다.

7년 전쯤에 30년 동안 오직 '나무아미타불'이란 하나의 화두를 받아서 일구월십,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는 보살님이 계셨다. 그분께서는 취장암으로 투병 중이셨는데, 고통이 전혀 없으셨다. 나는 이 보살님께 미리 부탁 하나를 드렸다.

"보살님, 제가 보살님을 모시러 오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인지 아미타불인지 물으면 꼭 알려 주셔야 해요."

보살님께서서는 그러겠다고 하셨다. 평소 혼자서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시던 보살님은 이후 내가 하는 방식대로 리듬을 바꿔 노래처럼 부르셨다. 일주일 동안이었지만 아주 잘하셨다. 보살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내가 노래처럼 염불을 했는데, 글썽 보살님이 손으로 춤을 추고 계셨다.

"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이 모시러 온 것 같습니까?"

내가 이렇게 여쭙니 보살님은 아니라고 하셨다.

"그러면요?"

"아미타부처님이 오셨어요."

"어떤 모습인가요?"

"금색 광명이 환하게 나를 비추고 있어요. 저는 그 빛을 따라 갈래요. 스님도 열심히 염불하셔서 다음에 극락에서 만나요."

그게 보살님과 마지막 대화였다.

이 책은 불교계 최초로 호스피스 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죽음을 배웅해온 비구니 능행 스님의 20년 세월의 총결산이다. 실제 죽음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죽음을 맞닥뜨리며 보고 듣고 느낀 삶과 죽음에 대한 에피소드는 물론, 그동안 사유하고 성찰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담고 있다. 또한 문학, 철학, 영화 등의 다양한 관점으로 죽음을 조명하고 이야기하며, 고독사나 존엄사와 같은 조금은 민감하게 다뤄지는 죽음에 대한 고찰까지 담아냈다. 능행 스님은 죽음을 터부시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놓고 꺼내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죽음을 생각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경험해보자.

- 출판사 서평 중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들

정토마을과 함께 걷는 이들의 소중한 나눔 실천에 감사합니다.

정토가족

7월	최성곤 김윤옥 김익휘	안성이 김혜숙	최종수 박지은	이수현 혜연스님	오민주 홍현스님	정진홍 전종현	박지우 전종민	이지원 박인숙	이재훈 이향숙	이정숙 장명호	이향림 김영희	김덕광 최현문	정연찬 이병화	이경민 장희희
8월	김도일 유정주 황혜승	임헌상 김수미 강나현	오성환 김화식 김정숙	박형석 곽이성 권해옥	최동철 박근 이민규	강찬모 박정애 이승규	김희정 관우스님 조순옥	정천마 이귀순	이계신 서희숙	권영목 이경숙	서준혁 구원조	임종하 이인혁	신동철 서은철	최선우 박정근
9월	강옥숙 전소연 이주희 유은혜 김선자 이권숙	김종언 한현옥 정영숙 김미자 박해경 김정윤	정인덕 전유정 한선자 지희영 서홍민 정명익	정맹희 정점덕 김영범 백순자 장상순 손정미	손영식 박영길 우혜진 이혜영 손세근 박시은	옥영미 성림희 우창범 손세근 박시은	정찬중 최환기 한석순 이동수 강형주	김미옥 주말숙 양경숙 조귀란 정복자	차원자 조성진 김연순 김미향 도명스님	이경화 박진희 표미순 정경애 강영선	이선현 김재욱 김덕선 전금순 이순자	염명자 장희빈 이원재 박정미 김행수	김순희 김일선 이정희 방금선 김창순	김형순 유영선 이정희 박순개 강남미

108병상

7월	조영희	노한석	김금자	이복금	황혜숙	손영향	한경옥	문건향						
8월	조은현	이금남	신정자	한해용영가	이의열	지원스님	안미숙	허경자	정규태	강수용	이봉숙	이만우		
9월	김영섭	유승현	유승미	신가린	유재련	정백자								

일시후원

7월	정원선	임필애	양재운	최분이	이상권	송금자
8월	김창욱	김춘익	익명	이성휘		
9월	박자비성	최태숙	장한선	강향숙	전민성	손영

의료기자체

9월 한현옥

건립후원

7월	부산불교 보현회	불교총지중	혜선스님	박현혜
8월	익명	리종린포체	이현숙	

의약품후원

7월	박연옥	이종청	정주임영가	이소령	이수현	경신스님	김수영	장명환	허동혁	박윤경	혜득스님	이광수	송금자	김영민
8월	홍재현	김양금	대희스님	장정숙	이우경	익명	원경스님	이의열	최진미	김경우	김상남	이영실	이귀순	이미희
	김숙희	김재호영가	지경옥	원정스님	도형스님	안숙이	김분선	강선희	이연준	방세도	이점용	여지모	서인선	김예진
	이춘애	이범수	김선숙	이순예	이지은	현담스님	이윤숙	서범동	옥준서	하광호	울산교원 불자회	이명자	남궁은숙	차봉기
9월	김성진	김영섭	송기동	안영자	정정숙	김명와	이동식	장익	김순전	최경예	원유진	최문선	이주비	하정임
	정석환	이수복	김남숙	윤정숙	손선희	손재선	이상봉	이상인	김영중	안상현	이길자	지야	유정주	
	이남이	전진오	한정호	울산초심회	남공관	황범주	최영미	김화옥	최환기	이순채	박재덕	이경림	조민석	옥숙자
	송지환	최세진	구순남	하문호	곽태열	익명(3)	손삼경	박선영	남선희	김주성	송대원	이주희	김정숙	송승훈
	최소행	김수필	박경숙	한영이	김지영	이재미	박임길	윤미자 (학생)	김지영	김종권	양재일	박승욱	이육환	우혜진
	김진길	오세룡	박천수	손시학	이민정	정찬중	부산금수사	우창범	배상철	윤미자 (성남)	정인실	황철수	윤성자	박화자
	신환우	최경례	신예정	박가을	신민주	정서현	차지숙	여정자 신도	이정희	홍명덕	정철윤	능행스님	이연옥	김성호
	최일학	조귀란	박진희	범해스님	장희빈	(주태성건설)	황순옥	김지영						



불사에 동참해 주신 분들

정토마을과 함께 걷는 이들의 소중한 나눔 실천에 감사합니다.

땅 1 평

7월 최완식 김영도
 8월 김정표 김현수 고우경 박형석 장용열 송세웅 김수미 박인숙 백규환 백규태 박종필 김성완 고윤옥
 9월 최성곤 김미자 지인

희망시멘트

8월 정은진
 9월 원복수 정찬중

법당불사

7월 정순옥 진금선영가
 8월 우기자 갈용란 정순정 강대공 김춘일 임옥이 윤미혜 김증자
 9월 정우연 신상호

물품을 후원해 주신 분들

정토마을과 함께 걷는 이들의 소중한 나눔 실천에 감사합니다.

과일공양

7월 김선이 옥저나눔회 부산불교보현회
 8월 문쌍부 이의열
 9월 이남이 무명 무명 이재웅 복돼지 서수일 이형봉 이승중 김재손 김순식

생필품

7월 현불회 노기동 부산불교보현회
 8월 노기동 현불회
 9월 노기동

떡공양

7월 송승훈 박영희 부산불교보현회 이회덕
 8월 안미숙 여호준 박영희 익명
 9월 부산자비공덕회 허철암 박명자 서희숙 이삼영 박영희

곡물공양

7월 조금구 신성우 부산불교보현회
 8월 윤문사 강영택 윤문사(참쌀)
 9월 (대구)대원사 대자사 지허스님 임재범

야채공양

7월 남궁은숙 김순식 고경화
 8월 김제준
 9월 윤말이 심말순 김병조 최정석 이숙선

야채공양

7월 광미경 정청례 조인숙 최세진 울산선우회
 8월 정청례 손삼경 조인숙 서민지 울산선우회
 9월 서민지 안미주 김석중 유성국 김오 정영숙 이만우 울산선우회 정우에너지 부산은행언양지점 상북농협주유소
 울산하늘공원

생사의 장 후원

8월 전환스님 현담스님 이명섭 이수복 노혜숙 예수스님 김미경 박연주 김봉삼 지관스님 광미경 옥막달 김은구 최영원 김진길
 범해스님 송기동 김경신 황다원 강정숙 김선이 양은순 김중훈 김자현 현서스님 안국향 유정옥 원겸스님 정순옥 손재선
 임옥이 김영임 자재요양병원 법천 임정심 법인스님

유제품, 커피

7월 박진양 대희스님 부산불교보현회

불기보시

7월 임선주 부산자비공덕회

꽃공양

8월 안미숙
 9월 이영수 이윤숙

생일, 대중공양

8월 만옥스님
 9월 최보영

기타 식품류

8월 익명
 9월 배동원 오연이 손영 김순이
 신옥호 이영애 최양순 김희자
 전명숙 김종규 김옥순 여환식



가을바람에 고마움을 담아 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그 고통으로부터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노력하는 선하고 맑은 정토마을 후원자들과 정토마을 행정을 맡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수희 찬탄 드립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호흡해 주시는 정토가족들이 있어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나눌 수 있는 행보를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 고맙고 감사합니다.

죽음을 돌보는 일, 국제 의료사업 등등
고단하고 힘겨운 길이기도 하지만
함께 이 길을 걸어주시며 손잡아 주시는 그대가 계시기에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도 괜찮겠죠. ()

2017년 11월 27일부터 있을 인도 보드가야 불가촉천민을 위한 의료봉사를 진행하면서 한편 2018년 봄 시즌 의료봉사를 염두에 두는 제가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호수를 만들고 바다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작은 보리심과 보살행이 호수가 되어 선업의 공적 바다에 이를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들이 나아가는 자선의 걸음걸음들이 당신과 잘 공유되도록 마음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좋은 날 당신과 함께 약을 들고 나서는 여정도 꿈꾸어 보겠습니다.
참 많이 고맙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가장 빛나는 추억 만들어 가시는 삶이시기를 ...

보드가야 의료봉사를 준비하면서 능행 합장

2018 정토마을 인등 접수

인등기도

꺼질래야 꺼질 수 없는 등불 하나
이 자리에 오롯이 밝혀 놓으니
나의 정성이 공덕의 열매로 익어지소서.

정토마을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정토마을 부처님 전에 모셔질 인등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인등이란 부처님께로 한걸음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등불로써, 인(引)은 끌어들이는 인자로 복을 끌어 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등을 밝히는 공덕은 천안을 얻으며 무명이 타파되어 사후엔 천상에 태어나 구경에는 성불한다 하였습니다. 정토마을 법당에 가족 인등을 밝히어 공양하신 공덕으로 2018년 한 해도 부처님의 가피 충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 소	정토마을 대법당
동 참 금	1인 월 5,000 원 (연 60,000 원)
계좌번호	농협 351-0661-9836-63 (예금주: 정토마을)
문 의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T. 052-255-8588

새해를 맞이하는 정토마을 동지기도 안내

우리 고유의 24절기 중 하나인 동지는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받아들이는 송구영신의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동지기도는 지난 해를 돌이켜 감사하고 참회하는 기도와 함께 다가올 새로운 해의 희망찬 새 서원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토마을의 동지기도에 함께하시어 다가올 새해에도 만사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입재일: 2017년 12월 20일(양) 오전 10시 / **기도회향일:** 2017년 12월 22일(양) 오전 10시
기도동참비: 50,000 원 **접수문의:**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052-255-8588

진신사리 봉안 (7차) 백일기도 봉행

석가여래 진신사리를 정토마을에 모시고 백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부처님의 화현으로 중생의 고통과 업장을 소멸시키고 선근공덕을 증장시키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을 청하는 천수다라니 500독 기도 정진에 초대하오니 수희 동참하시어 매 순간, 불은 가득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입재일: 2017년 7월 30일(양) 오전 10시 / **기도회향일:** 2017년 11월 5일(양) 오전 10시
기도동참비: 300,000 원 (분납 가능) **접수문의:**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052-255-8588

재원환자 대상 마하치유 방송 및 프로그램 재능 나눔 소식

주최: 마하치유방송실
담당: 치유코디네이터 이지혜

본 병원에서는 재능 나눔 봉사자들을 모시고 재원환자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및 공연 관람을 통해 삶에 대한 애착과 존재감을 독려하며, 가족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족의 소중함과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다도와 요가의 만남^o

따뜻한 차를 내리는 모습을 직접 선보이며 정성스레 내린 차를 건넨다. 따뜻한 차와 정성으로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 요가로 몸을 스트레칭시킨다.

단체명 | 다화회 협회 이현숙 선생님 외

일 시 |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10월 생일잔치^o

본 병원에서는 17년 8월 재원환자 대상으로 생일잔치를 진행하여 잃어버린 삶에 대한 애착과 존재감을 독려하고, 가족들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부모님의 소중함과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10월 생일잔치에도 하하호호웃음치유예술단을 모시어 생일잔치를 웃음으로 가득 채워보고자 한다.

단체명 | 하하호호웃음치유예술단

일 시 |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45기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 33명 수료

지난 7월 30일, 마하보디교육원은 6박 7일 일정으로 제 45기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생사의 장은 생사를 인생이라는 한 선에 놓고 현대인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발견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스님과 재가자 33명이 8월 5일 모든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였습니다.



2기 솔마더(Soul mother) 9회차 진행

2017년 4월 2일을 시작으로 18명이 수련 중인 솔마더 (Soul mother) 수업이 10월 9일, 9회차에 접어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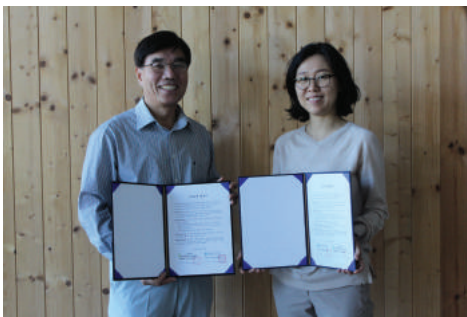
2017년 11월까지 11회에 걸쳐 영적 치유 에너지를 강화하기 위한 집중수련이 이어 집니다.



MAHABODHI EDUCATION CENTER

(사)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교육교류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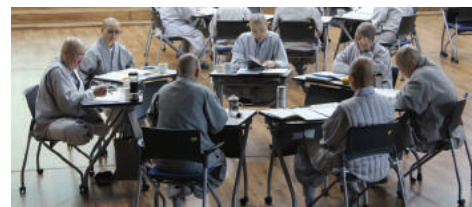
지난 10월 10일, 마하보디교육원은 (사)한국 불교 호스피스협회와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호스피스 봉사자와 영적돌봄가 양성에 협력 하게 됩니다.



특별과정 승려연수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교육실시

10월 22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특별과정 승려연수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환자를 위한 기도훈련 및 임종의식 집중수련>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존 승려연수 불교호스피스 교육을 수료하신 스님들의 전문수련 프로그램의 필요성 요구에 따라 개설된 특별과정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연수 30점이 인증 되는 교육입니다.



2017학년도 가을학기 개강

2017년 9월 1일 ~ 2일,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석사과정과 생명교육 전문가과정의 가을학기가 개강되었습니다.



한국싸나톨로지협회 학술교류 협약 체결

2017년 7월 17일, (재)정토사관자재회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과 한국싸나톨로지협회가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 학술정보 교류, 공동연구 등 상호 연계적인 연대를 통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MAHABODHI MEDITATION PSYCHOLOGY GRADUATE SCHOOL

가을 시민무료 공개특강 <자기심리치유>개최

2017년 10월 12일,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과 NGO 생명교육 네트워크 공존이 공동 주최하는 시민무료 공개특강 <자기심리치유> 첫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특강은 10월 12일 '콤플렉스, 외면당한 또 하나의 나'를 시작으로 11월 9일 '집중 명상, 통찰 명상' 12월 14일 '명상을 통한 자기치유 기법'까지 총 3강으로 진행되며, 강사로 김경일 교수님을 모시고 61명의 시민이 함께합니다.



NGO 생명교육 네트워크 공존 창립

2017년 10월 14일, NGO 생명교육 네트워크 공존이 창립하였습니다.

NGO 공존은 인류와 일체 생명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함께 존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는 생명교육단체이며,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과 활동협력기관으로 재학생 및 졸업, 수료생이 생명교육 활동가로 함께 합니다.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2018학년도(전기) 신입생 모집

● 석사과정 (명상심리학 전공) ● 생명교육전문가과정

원서접수 : ■ 석사 추가모집 11.20.(월)까지 ■ 전문가 11.3.(금)까지

지원자격 : 석사 -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인 자
전문가 - 제한 없음 (의료, 철학, 교육, 사회복지 전공자 및 NGO활동가 우대)

제출서류 : **공통**

입학원서(본 대학원 양식) 1부
자기소개서(본 대학원 양식) 1부
승적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 1부
증명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 1부

석사만 해당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예정증명서 1부
최종학력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1부

입학문의

교학처 행정실 T. 052)255-8521, 8523 F. 052)264-0209 M. 010-4656-0180
E. grad.mahabodhi@daum.net H. www.mahaedu.org
A. 44908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마하보디교육원

2018년 3기 솔마더 (Soul mother) 수련생 모집

교육기간 : 매월 첫째주 일요일(총 10회)
1회차 2018년 4월 1일(일요일) 13:00~22:00 / 9시간

교육대상 : 사부대중

교육정원 : 30명(선착순)

접수마감 : 2018년 2월 28일(수)까지

교육비 : 140만원(수련복, 교재비 별도)

제출서류 : 교육지원서, 사진(3x4) 1매

접수문의

교육원 행정실 T. 052)255-8522, 8524 F. 052)264-0209 M. 010-8848-8522
E. mahabodhi@daum.net H. www.mahaedu.org
A. 44908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마하보디교육원

정토마을 모연문



정토마을은
 붓다의 가르침을 토대로
 공존을 통해, 함께하는 공생의 삶에 질적 향상을 꿈꾸며
 좀 더 아름다운 생과 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 모연을 통하여 더욱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동참하겠습니다.

■ 정토마을의 후원과 불사에 동참하시면 연말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구 분	후원(동참)금	계좌번호	비 고
108병상 후원 (호스피스센터 건립)	1,080,000 원 (분납 가능)	농협 815039-55-003185 예금주 : (재)정토사관자재회	(분납) 3만원 : 36개월
진신사리 봉안 및 삼천불 조성	1,080,000 원 (분납 가능)	농협 351-0487-2570-73 예금주 : 정토마을 국민 701401-01-202462 (재)정토사관자재회	5만 4천원 : 20개월 10만 8천원 : 10개월
법화경 천일기도	매월 3만원	농협 401131-51-081662 예금주 : (재)정토사관자재회	
한 생명 후원	매월 1만원부터	부산 101-2002-6325-04 (재)정토사관자재회 농협 401131-51-080245 (재)정토사관자재회	
땅 한 평 공양 불사	300,000 원	농협 351-0487-2570-73 예금주 : 정토마을 국민 701401-01-202462 (재)정토사관자재회	
2018 인등 기도	매월 5천원 일년 6만원	농협 351-0661-9836-63 예금주 : 정토마을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전화 : (052)255-8588 팩스 : (052)254-2347



정토마을자재양병원

접수/입원/퇴원



Healing is Loving

비전

핵심가치

- ▶ 자비 실천
- ▶ 생명 존중
- ▶ 의식 성장

- ▶ 지역사회를 살리는 병원
- ▶ 생명 존중을 살리는 병원
- ▶ 사랑과 믿음을 키우는 병원



완화의료중심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Healing is loving, 사랑이 곧 치유입니다.

| 전문 의료 서비스

내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 양·한방 협진 진료

- 양방특수요법 - 항암면역증강요법,
미슬토주사, 메가비타요법,
마이애스 카테일 주사 등
- 한 방 요 법 - 한방 침·뜸·부항요법, 전침,
탕약치료, 약재요법 등

| 특화 치유 서비스

예술융합치유

음악, 미술, 요가, 춤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심신 치유와 자기 성장을 만들어가는 자기융합의
행복한 과정 경험

임상전문 상담치유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중재 조절과 적극적인 영역
돌봄을 통한 치유.
임종기도와 의식을 통한 편안한 여정으로의 동행

| 층별안내

- 1F** 완화의료(호스피스)병동
양·한방 진료실, 집중관리실, F·G실,
입원상담실, 원무과, 공용 목욕실
- 2F** 재활·요양병동
마하치유방송실, 휴게실, 탕비실,
영적돌봄연구실, 공용 목욕실
- 3F** 승가병동
한방요법실, 물리치료실, 사회복지실, 영양실,
힐링푸드식당, 차담실, 공용 목욕실
- B1** 임상병리실, 약국, 바이룸, 봉사자실, 교육장,
직원 휴게실, 한방약제실, 탕전실

| 진료안내

외래진료 : 09:00~18:00 (월~금)
입원상담 : 052-255-8400
(주말, 공휴일 휴무)

| 입원 대상자

완화의료(호스피스) 대상자 및 암환자, 중풍, 치매,
노인성·만성 질환자,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

법화경독송 21일 장좌기도 봉행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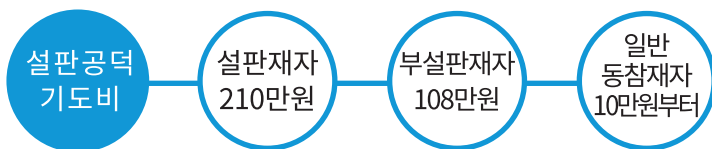
법화경 장좌기도는 정토마을 승가공동체 스님들께서 모두 합심하여 21일 동안 매일 24시간 법화경을 독송하는 기도로, “삼재액난소멸·선망부모천도”를 위한 본 기도 대법회가 내년(2018년)이면 8년째 봉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태민안과 선망부모의 왕생극락 그리고 나의 가족들의 평온한 삶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이오니 이 글을 만나는 인연으로 이 기도에 함께 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1일 기도 회향은 정월 대보름 동해바다가 시작되는 감포 앞바다에서 방생법회로 봉행하며, 나라 안팎이 어지럽고, 전 세계가 삼재팔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때 우리가 마음을 크게 내어 지구 가족들의 안녕과 나의 가족들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2018년 무술년 한해를 위한 법화경 독송 21일 장좌기도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입재 : 2018년 02월 10일 토요일(양) / 회향 : 2018년 03월 02일 금요일(양)



기도접수: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052-255-8588 계좌안내: 농협 351-0487-2583-23 정토마을

108병상 기부 동참하기

2016년 1월 8일 호스피스완화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호스피스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적합한 병동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정토마을은 20년간 실천해온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실현하고자 합니다.

치매전문병동, 와상병동, 중환자병동,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등으로 전문화하고 개별화된 시스템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08병상 모연에 당신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동참계좌	농협 815039-55-003185 (예금주 : (재)정토사관자재회)		
접수방법	전화, 방문, 홈페이지 접수		
전 화	052-255-8588	팩 스	052-254-2347
방 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홈페이지	www.jungtoh.org		

땅 한 평 공양 불사

후원자들의 따뜻한 가슴이 모여 오늘의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이제 환우와 보호자들이 부처님께 기대 아프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법당 건립을 위해
땅 1평 공양 불사를 발원합니다.

일 시 불 입금계좌	농협 351-0487-2570-73 (예금주 : 정토마을)		
3회 분납 입금계좌	국민은행 701401-01-202462 (예금주 : (재)정토사관자재회)		
전 화	052-255-8588	팩 스	052-254-2347 (화주 : 평등각)
홈페이지	www.jungtoh.org		

- 땅 1평 공양금은 1인 30만원이며, 일시불 또는 3회 분납으로도 공양 올리실 수 있습니다.

정토마을 석가세존 진신치아사리 봉안 보궁 불사



삼천불 모연 불사 진행 상황 안내



진신사리 봉안, 보궁 불사와 삼천불 봉안, 법당 대작 불사 모연 진행 상황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환우와 가족들, 그리고 정토마을을 찾는 신도님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의지할 곳을 삼고 위로와 위안을 받을 법당불사가 시급하여 불사를 서원하고 모연한지 3년이 흘렀습니다.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시고 삼천불, 약사여래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을 조성하는 대작불사에 불자님 한분 한분의 뜻깊은 서원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작 불사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건축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주와 수차례 협의하여 온 바 무리한 지대 요구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땅 1평 공양불사를 서원하여 천여 명이 동참을 해 주신 결과 2016년 12월 말에 계약을 체결, 2017년 2월 말에 부족한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올해 건축설계를 시작으로 발 빠르게 법당 불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토마을의 모든 일들이 불보살님과 화엄성종의 가피라 여겨집니다. 그동안 각각의 서원을 담아 원불을 모셔주시고 땅 1평 공양 불사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주의 복전을 일구신 공덕으로 모든 생에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발원합니다.

도량이 청정하면 어떠한 장애도 없으며 화엄성종의 옹호하심으로 만 가지 일이 성취된다고 하였습니다. 정초의 장좌21일 기도와 법화경 천일기도, 사리각 1,000일 다라니 기도로 도량을 청정하게 하며 영원한 의지처가 될 정토마을 대작 불사를 하기 위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연을 기다리는 원불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서원을 담아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약사여래불을 원에 따라 모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불을 모시고 법당 불사에 동참해 주신 700여 분들, 부처님 형상 조성한 공덕은 수승하여 죽어서도 천안을 얻고 삼악도를 면하며 천상에 태어나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고 그 이름 또한 온 세상에 두루 퍼지는 공덕이라 하니, 이는 부처님 형상을 만든 인연이겠지요.

2017년 10월 삼천불전 불사 모연 상황

주불 아미타불 동참자 : 31건, 500만 원 이상 삼존불 : 3건, 가족 2000만 원
관세음보살 : 302건, 108만 원 지장보살 : 117건, 108만 원 약사여래불 : 204건, 108만 원
땅 1평 공양 불사 : 803건, 1평 30만 원 일반동참 : 166건, 10만 원 이상

법당 내에 원불배치 도면이 확정되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가족끼리 나란히 모시기를 원하시면 미리 신청해 주셔서 자리를 배정받으셔야 합니다.

입금계좌 : 농협 351-0487-2570-73 정토마을 문의 : 052-255-8586 (화주 : 평등각)

정토마을 제4차 법화경 천일기도

「후원자 님들의 안녕과 평안한 삶을 위하여…」

입재일 : 2017년 2월 26일(음력 2월 초하루)

기도 주제 : 법화경 독송(제불보살님 가피기도)

기도 방법

(1) 매일 : 가정에서 법화경을 독송하거나, 사경합니다.

(2) 매월 4주 일요일 : 언양 정토마을 대법당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집전 : 티벳 스님들과 정토마을 대중스님 합동기도

* 기도진행 프로그램 *

병고액난과 액난소멸을 위한 티벳 밀교의식
법화경(여래수량품, 약초유륜, 관세음보살 보문품)

* 매월 4번째 주 일요일 대중기도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불보살님께 공양, 영가를 위한 제사의식)

천일기도 동참금 : 매월 3만원 36개월 분납(자동이체)

설판 초대 : 개인, 단체접수

* 티벳 계시 스님들이 업장소멸기도를 하시는 장면



딱돌[bTags gro]

**이 진언 만다라를 몸에 걸침으로써
오온이 자연해탈 됩니다.**

악업이 치성하고 업이 무거운 사람도 선하고 착하여 업이 맑고 가벼운 사람도 모두가 죽어갈 때 이 다라니를 어깨에 걸치게 되면 의식(영혼)은 밝은 빛으로 해탈하여 극락세계 연꽃 속에 태어난다. 이승에서 마지막 숨이 남아 있을 때 딱돌을 어깨에 걸치기만 하더라도 오온(육체)으로부터 집착과 고통을 가볍게 여의고 해탈을 한다.

이것을 만나기는 진실로 어렵고,
만나도 마음에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이것을 만나는 자는 누구든 환희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공손히 받아 지니도록 하라.
임종 시에도 이것을 몸에서 분리시키지 말라. [다비 시에도 이것을 몸에서 분리시키지 말라.]
이것을 보고, 듣고,忆념하고, 접촉함을 통해서 해탈하게 되는 딱돌을 몸에 걸치므로
악업과 죄장이 남김없이 정화되고, 살덩이의 육신이 무지개의 몸으로 바뀌게 하소서!
(‘사자의 서’ 중에서)내가 이 육신을 벗어던질 때 탐욕과 분노, 애착의 넝쿨을 모두 끊고,
마음을 조작 없는 본래상태에 안치하여 죽음을 해탈의 길로 삼도록 가지하소서!
불보살님의 지극한 가피의 힘과 법성의 본질이 본래로 청정함과,
또한 나의 정결한 의지의 힘으로 발원한 그대로 성취되게 하소서!

1200년 전 티베트 성자 빠드마삼바바께서 구술한 비방을 여제자 에시초겔이 글자로 기록하여 숨겨둔 경전이 ‘사자의 서’다. 빠드마삼바바께서는 바르도퇴돌(사자의 서)을 구술 하면서 말세의 불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다. 만약 누구든지 이 가르침을 듣고서 단지 샅된 소견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해탈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극히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라. 이것은 일체의 정수만을 가려 모은 제호와 같다. 그러므로 이 바르도퇴돌(사자의 서)의 가르침을 단지 듣는 것만으로 해탈하고, 죽어 갈 때 어깨에 걸치는 것만으로 해탈한다.

온전한 부처님의 가피물인 딱돌

인연자들이 임종할 때 어깨에 걸쳐 주시면 망자가 해탈을 하는데 수승한 인연복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